♡—seikyoonline—♡

이달 제1회 여성부총회를 개최

2022년 4월 1일

행복과 평화의 꽃을 피우는 대화의 모임
지구(地區)에서 명랑하게 부(部) 결성 1주년을 기념

꾸준한 방문격려와 소단위의 대화를 통해 세대를 넘어 희망의 스크럼을 넓히고 있는 여성부의 벗. 지구(地區) 단위로 실시하는 제1회 '여성부총회'는 부(部)결성 1주년을 함께 기뻐하는 마디의 모임이 될 것이다.© 세이쿄신문사

결성 1주년을 맞는 여성부(女性部)가 이달 제1회 여성부총회(女性部總會)를 명랑하게 개최한다. 전(全) 세대(世代)의 여성부원들이 지구(地區) 단위로 모여 사제(師弟)의 정신과 신심(信心)을 깊게 하는 대화의 꽃을 피워 간다.

지난해 5월 3일에 발족(發足)한 여성부. 발족 직전,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은 **"여성부의 파이어니어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혁명(人間革命)의 실증과 앵매도리(櫻梅桃李)의 스크럼이야말로, 21세기의 여성의 '행복승리(幸福勝利)'와 '평화연대(平和連帶)'의 길을 크게 밟으며(다지며) 열어 간다."**라고 만감의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결성 당일인 5월 3일, 선생님은 축복의 와카(和歌)를 읊어 선사했다.

생명(生命)의

세기(世紀)의 태양(太陽)

여성부(女性部)여

평화(平和)의 문(門)을

열어 비추어라.

© 세이쿄신문사

11월 18일에는 여자부가 일체가 되어, 이래, 세대를 초월해 창가가족(創價家族)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태양의 스크럼을 펼쳐 왔다. 1주년을 맞는 지금 창가(創價)의 여성들은 스승의 평화건설을 향한 마음을 간직한 채 자신의 발밑에서부터 우정을 맺는 대화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다.

“안온(安穩)과 평화(平和)의 세계를 넓히는 가장 확실한 힘은 바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행학(行學)에 힘쓰는 어머니들의 풀뿌리 연대에야말로 있습니다.”

- 2018년 4월, 선생님은 ‘5·3’기념 본부간부회의 메시지에서 엮었다.
시대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일대일의 신뢰(信賴)를 맺고 착실히 평화의 물줄기를 늘려가는 여성부의 사명은 크다.

© 세이쿄신문사

나가이시(永石) 여성부장, 누마쿠라(沼倉) 서기장은 힘을 주어 말한다.

“모두가 안심(安心)하고 모일 수 있는 따뜻한 지구(地區)야말로 마음의 오아시스이며 한사람 한사람이 성장(成長)하고 소생(蘇生)하는 본무대(本舞臺)입니다. 이 총회에서부터 전원(全員)이 일보전진(一步前進)하는 인간혁명(人間革命)의 도전을 생생하게(생기 넘치게) 개시해 갑시다!”